

작품 감상에 자연도 만끽 '산속을 품다'



남원출신 김병종 작가
400여점 작품 등
남원시에 무상 기증 설립
현재 기증작품 특별전시



김병종미술관 전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 미술관)이 남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 2일에 개관한 미술관은 두 달만에 관람객 6,349여명이 다녀갔다. 미술관은 자연이 품은 '전원형(田園形)'으로 산 속에 위치해 지리적 거리감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남원의 숨은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평균 4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덕유산 등 주변의 자연을 만끽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지친 일상을 털어내는 힐링 장소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술관은 개관전으로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회상, 회향'을 3개 전시실 전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갤러리 1에서는 김병종(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40년 회화 세계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1980년대 주요 작품인 〈바보예수〉와 〈생명의 노래〉 시리즈 중심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히는 가로 10미터의 초대형작 〈생명의 노래-숨은 잠들지 않는다〉는 보는 이를 압도한다.

갤러리 2에서는 김병종과 남원의 관계성이 부각된 전시가 펼쳐져 있고, 갤러리 3은 문학인 김병종의 모습을 재조명한 전시로 그의

대표 저서인 '화첩기행' 원작과 친필 원고 등의 자료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미술관은 또 2018년 상반기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나는야 리틀 김병종'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전시의 연장으로 전시작품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5세 어린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병종의 작품 이해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더해져 자신만의 명화를 완성하는 특별한 미술시간이다.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다. 전화 접수(620-5661)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담당자는 "이번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술관에서 멋진 꿈을 꾸고 순수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당일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해시태그하면 김병종의 그림엽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남원문화도시 사무국이 6월 23일 진행하는 문화체험형 프로그램 '문화버스 구석구석'에는 김병종 교수가 직접 참여해 미술관 및 전시작품을 소개하고, 동양화의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줄 예정이다(예약 문의 635-0016).

김병종미술관은 남원출신 김병종 작가가 400점의 작품과 5,000여권의 서적, '화첩기행' 원고 등 각종 전시 자료를 남원시에 무상 기증해 설립되었다. 전시는 6월 24일까지. /남원=유영철 기자

** '김병종 기증작품 특별전-회상, 회향'
내달 24일까지 전시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콜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99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선구)

홍보대사 류수영